

<문제>다음 중 탄핵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고르시오.

1. 시저 - 루비론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2. 마키아벨리 - 나는 내 영혼보다 조국 피렌체 공화국을 더 사랑한다.
3. 예수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4. 스타니파라 -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시저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다. 정치가로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한 민중파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과 갈등으로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 심복에 의해 살해되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가슴에 박힌 칼을 부여 잡고 시저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현명한 지배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자기가 조성할 수 있는 두려움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에 대한 증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한 여인을 둘러싼 군중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양손에 주먹만한 돌덩이를 들고 분노의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군중들에게 에워싸인 여인은 갇힌 상태에서 저택의 죄인이다. 예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인민재판이다. 예수가 위와 같이 말하자 분노와 호기심으로 들끓던 군중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부처님이 시저 아난다를 데리고 아지타바티 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라문람마카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집에서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부처님은 논쟁이 끝날 때까지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다.



###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대진대 문학과 겸임교수

## 탄핵정국의 해법

"너희들은 여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희들은 법을 말했으며 그 법을 듣고 그것의 진위와 우열을 판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 앉으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하나는 잠깐 법진여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는 하나를 골라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정답을 콕 찍어서 시대

를 평정하는 영웅이 되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하나의 정답으로는 역부족이다. 득점을 포기하는 어려움에 감수하고 고라도 위의 보기 모두를 통합해야 정답이라고 우겨야겠다.

정수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나 지혜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일이다. 선택은 고통이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한다. 상생의 지혜는 이분법과 객관식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문제를 출제할 무능한 출제자는 심히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출제자 명단에는 국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탄핵 정국에 연루된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침묵이다. 입은 다물되 성찰의 동력은 활활 타게 하라.

탄핵정국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상생의 정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대결과 갈등을 접고 상생과 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국민들의 지혜에 달려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의 눈

올해는 조계종이 개혁의 닦을 올린 지 꼭 10년째가 된다. 1994년 3월 23일 범승가중단개혁추진회가 발족하고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개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계종은 '종단 개혁 5대 실천 이념'을 중심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조계종은 3원 체제를 확립하여 출가자의 수행과 교육은 물론 불법홍포와 대중 교화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법구현, 불교자주화, 종단운영 민주화, 청정승단 구현,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 5대 개혁 과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은 항상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

### 조계종 개혁 지금도 '진행형'

들이 종단의 제도개혁은 어느 정도 케도에 올라와 있지만 의식 개혁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자로서의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어법한 생활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불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둘째, 이제 기복불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천불교, 참여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간의 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생태계 파괴는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심각한 대립 속에 휩싸여 있다. 이 모든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불교계는 지혜와 자비, 중도와 원융의 정신에 입각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을 펴 나가야 한다.

셋째,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은 안거와 자자, 포살 등의 전통적 의식 등에 반드시 동참하고, 재가자들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신행지침을 마련하여 규칙적으로 점검하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이 연대하여 지구적 문제와 시대적 도전에 함께 대처해 가는데 한국불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 이렇게 들었다 두번째 화살

아직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괴로운 느낌을 받으면 비탄에 잠기면서 흥미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첫 번째 화살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화살을 받는 것과 같다. <상운부 경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연일 친노 반노, 개혁 보수로 나뉘어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은 이 판에 사생결단을 내리는 듯 두 눈이 벌개져 있다. 더구나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득하여 지켜보는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곤 한다.

모두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중'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흥미한 정국의 책임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 정치전문가들조차 원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지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아해보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이다.

세간에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는 말이 유행이다. 어느 개그맨의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하여 고소(苦笑)를 금치 못한다. 이처럼 두 번 죽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부처님의 교훈이 바로 '화살' 법문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제자가 "세상사 괴로움(人生八苦)에서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혼란한 탄핵정국은 첫 번째 화살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받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패는 '더불어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일 듯 싶다.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지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때이다.

■ 이준엽(취재부장·호남 주재)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사찰 어린이집 더 많아야

6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다. 최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서 어린이집을 고르느라 고민이 많았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매일 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없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결정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만, 아이들이 매일 차에서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집을 찾다니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이나 교육 커리큘럼, 시설, 거리 등에서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자이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도 종종 만날 수 있다. 교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절에 가기를 꺼리고, 불교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격정적인 얘기도 들린다.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근 기사를 읽었다.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도 많이 운영해주길 바란다. 이는 개인적인 바람인 동시에 불교 포교를 위한 중요한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김은미(청원시 가음정동)

#### 나눔 문화 확산되길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 실천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나눔의 운동' 소식을 듣고 반가움을 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눔이란 큰 것이 아니다.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내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독자 사진 '대통령 노무현 나라평안 발원' 대통령 탄핵'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요즘, 관음재일었던 3월 14일 조계사 대웅전 상단에 '대통령 노무현 나라평안 발원'이란 문구가 적힌 공양물 이 눈길을 끌었다. 김민수(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심민섭 '연대' 민영 배는 강위에 떠있으니...

## 불자님을 모십니다

남로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호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기로 실크로링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던 부처님의 기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호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운회여래불, 보살3송이, 나비, NS꽃, 왕관꽃, 왕관, 제비꽃, 진달래, 토끼꽃, 봉선화, 매화

Size : 54 X 82 (Cm)  
Size : 67 X 54 (Cm)

구입문의 및 상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피아노 수강생 모집

### 지도교수 권상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짜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렷스·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51)890-1947-8 FAX: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ae.ac.kr E-mail: educate@dongae.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011-342-8215

##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상층계,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탈취제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류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임차)중금속·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디백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권연구원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정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생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전수내용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회장 모집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권연구원 수성빌딩 3층

한글에너지 대한은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